

의미요법(Logotherapy)의 인간이해와 교육적 의의

한 미 희

동국대학교

〈요 약〉

인간은 자신의 삶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여 심리적인 성숙뿐만 아니라 그 너머의 초월적인 성숙을 지향하게 된다. 인간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삶의 의미를 끊임없이 찾는 존재이기에, 자기 완전성의 실현에서 삶의 궁극적 의미에 도달하고자 한다. ‘의미 요법’의 창시자인 빅터 프랭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과하기 쉬운 실존, 의미, 자유 그리고 책임의 문제를 정신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나치의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겪은 그의 혹독한 체험은 “고난은 고난 특유의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고난이기를 그친다.”라는 명제를 통해 자신의 실존적 인간관을 잘 드러낸다.

여기에서 프랭클은 극단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으로부터 일어나는 태도의 변화와 인간의 ‘영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성장이란 인류 보편적 차원에서 인간 내면의 정신적 성숙을 뜻한다. 이러한 내용의 의미요법은 현대 인간의 실존적 공허와 소외의 문제에 대한 단순한 치료기법이라기 보다는, 근원적인 인간의 문제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프랭클은 인간의 전일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삶의 전일성, 교육의 전일성 등 인간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연계되어 있음을 자각하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간의 실존적 자각과 영성적 각성이라는 근원적 문제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요법이 전제하는 인간상으로부터 교육적 시사점을 찾을만하다고 추론한다. 이는 곧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삶에 있어서 치유와 성장을 경험하도록 돕는 일이 참다운 교육의 핵심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교육의 대상으로서 인간 존재에 관한 성찰은 존재의 초월이라는 지평과 만나면서 교육 분야의 실천적 응용에 하나의 장을 마련해주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핵심 주제어 : 의미 요법, 빅터 프랭클, 영적 성장, 초월적인 인간 이해, 교육 분야의 실천적 응용

I. 서 론

현대인들은 정보와 시대라는 급진적인 변화 속에서, 문명의 이기(利器)를 통해 생활의 편리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기계적 발전과 기술적 진보의 정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가중되는 심리적 불안과 정서적 갈등 속에서 본래의 자기 모습을 상실하며, 삶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는 심리적 공허감과 상실감을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소유함으로써 채우겠다는 잘못된 타성에 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외부의 피상적 조건을 채움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미를 충족할 수 있다는 그릇된 신념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주도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영위하기 보다는 인생의 힘겨운 문제들과 대면할 때에 손쉬운 해답을 찾아 도피하거나 가시적 결과만을 추구하는 생활인식에 익숙해 가고 있다. 또한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은 서로 다른 사고구조와 행동방식, 삶의 목표를 가진 타인들로부터 이해와 인정을 통해서 자기 확신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기에 인간관계가 형식적이고 기계화되어있는 현대인에게 가장 큰 갈등은 인간성 상실과 소외에서 오는 실존적 공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실존적 공허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역시 인간성 상실의 과정만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인간에게 주어진 내·외적 한계를 극복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달성하기 위해 초월적 성숙을 지향해 온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어 온 바이다. 그리고 인간은 신체, 심리, 정신, 영적 감수성을 함께 지닌 전인적 복합체로서 이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것 하나가 결핍되거나 균형을 잃었을 때에는 필연적으로 공허와 상실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다면 역사의 진보를 통해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의 사회발전을 이루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대 이후의 인간에게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존적 위기상황은 과연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실제로 현대사회를 구성하는 요인들의 복잡하고 급격한 변화는 인간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인간이 수단과 도구로 전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늘날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 또한 문화와 인지과학 및 학문 체계 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계층 프로젝트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과 영혼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을 유도하고 있다.¹⁾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 변화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식론적 전환 혹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드러나는 총체적인 삶의 의미 전환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 인간 자체가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인간에게 부여된 의미가 고정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인간에 대한 어떤 본질 규정이 인간의 삶과 행동을 연역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

1) 이상훈, 『디지털 문화와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17(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3), 45쪽.

라, 인간으로 존재하는 자체가 곧 부단한 선택이며 행동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삶의 도정에 던져진 인간인 나 자신은 부단히 자신을 던짐으로써 스스로를 만들어 나가는 것 즉 인간이란 “만들어가는 존재이며”(being-in-the making), 역사와 터 속에서 “인간됨”(being human)을 부단히 확인해 가는 존재라 할 수 있다.²⁾

결국 인간은 자신의 삶이 지닌 내면적인 한계를 극복하여 심리적인 성숙뿐만 아니라 그 너머의 초월적인 완성을 지향하게 된다. 인간은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감수성을 함께 지닌 복합체로서 이 세계 안에 살고 있다. 그러면서 인간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삶의 의미를 끊임없이 찾는 존재이기에, 자기 완전성의 실현에서 삶의 궁극적 의미에 도달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미 요법(logotherapy)의 창시자인 빅터 프랭클(Viktor Frankl)이 우리의 주목을 끌게 된다. 프랭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과하기 쉬운 실존, 의미, 자유 그리고 책임의 문제를 정신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나치의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겪은 그의 혹독한 체험은 “고난은 고난 특유의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고난이기를 그친다.”라는 명제를 형성하게 되었다.³⁾

프랭클의 의미요법이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인간 실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전통적인 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정신의 문제를 실존에 대한 당대의 긴박한 요구에 매우 밀접한 연계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실존주의적 입장은 사실 과학적이거나 관념적인 용어로 설명될 수 없는 인간 삶의 본질적인 물음을 통해 인간에게 주어진 한계상황을 명확하게 분석하려 한다. 인간은 더 이상 관찰이나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매 순간 삶의 의미를 스스로 묻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체험의 주체로 자각된다. 즉 그 어떠한 해석의 틀이나 객관적인 판단도 인간을 자신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지 못한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의 선택과 결단에 책임을 지는 초월의 주체가 된다고 본다.

여기에서 프랭클은 극단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으로부터 일어나는 태도의 변화와 인간의 영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성장이란 특정한 종교적 의미가 아닌 인류 보편적 차원에서 인간 내면의 정신적, 영적 성숙을 뜻한다. 이러한 의미요법은 현대 인간의 실존적 공허와 소외의 문제에 대한 단순한 치료기법이라기 보다는 근원적인 인간의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 또한 갖는다. 실질적으로 프랭클은 인간의 전일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삶의 전일성, 교육의 전일성 등 인간과 관련된 모든 것이 연계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자각하도록 시사하고 있다.⁴⁾

2) 김영민, 『컨테스트로 패턴으로』(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6), 136쪽.

3) 빅터 프랭클은 1905년 ‘유대인’이라는 운명적 신분으로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다. 1942년부터 1945년까지 나치 치하의 강제수용소(Auschwitz, Dachau 등)에 감금되어 처참한 생활을 하던 중 부모와 아내, 두 자녀를 잃게 된다. 이렇게 극도로 처참한 체험을 바탕으로 정신분석학적 입장을 토대로 하여 의미요법을 창안하게 되었다. 이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이 자신의 문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차원의 정신분석 요법이 되었다. V. E. Frankl, *Man's Search for Meaning*(New York: Washington Square Press), 김충선 역, 『죽음의 수용소에서』(서울: 청아출판사, 1998), 57쪽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요법의 교육적 의미를 탐구하는 연구물들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기존의 연구물에서 의미요법이 갖는 상담 이론적 가치를 제시한 논문들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기독교적 목회상담과 연결하고자 하는 몇몇 시도들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의미요법에 대한 기본적 소개에 그칠 뿐,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 이론이나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보편적이고 교육실천을 위한 연구자료로서는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교육의 긍정적 목표는 인간성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영적 성장이야말로 정신적 존재로서 인간 성장의 독특성을 나타낸다. 영적 성장은 희망과 가치 또는 자유 의식과 통합적 경험을 고양시키는데 그 목표가 있다. 인간의 삶에 목표를 주는 의미, 인간의 선택에 인내를 주는 가치,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각된 만남들은 서로 다른 차원의 모든 관계에 통일성을 제공해 준다.

본 연구는 이처럼 의미요법이 단순한 상담 기법의 하나로 인식되기 이전에 인간의 실존적 자각과 영성적 각성이라는 근원적 문제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요법이 전제하는 인간상으로부터 교육적 시사점을 찾아낸다고 추론한다. 인간의 초월적 성향을 촉발하려는 영적 성숙은 인간 성장의 궁극적 목표이다. 이는 곧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삶에 있어서 치유와 성장을 경험하도록 돕는 일이 참다운 교육의 핵심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교육의 대상으로서 인간 존재에 관한 성찰은 존재의 초월이라는 지평과 만나면서 교육적 숙고의 장을 마련해주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의미요법이 실존적 자각과 영성적 자각이라는 인간이해를 통하여 등장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의미요법이 추구하는 영적이고 교육적인 가치를 밝히려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미요법 형성의 이론적 배경을 이해한다. 실존철학적 인간관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의미요법의 인간이해를 기술하고, 프랭클이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의 터득한 삶의 의미가 의미요법에 투영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의미요법에 전제된 인간이해를 논의하고자 한다. 프랭클이 실존적 인간의 전제로 선택한 자유적 존재, 결단하는 책임적 존재, 초월지향의 영적 존재라는 세 가지 틀을 살펴볼 것이다.

셋째, 의미요법의 인간이해가 갖는 교육적 의의들을 현대 교육의 관점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범위와 방법은 프랭클의 저서가 주로 검토되며 의미요법의 인간관 형성에 영향을 준 실존주의 철학의 사상을 참고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의미요법과 관련된 주요 선행 연구물을 분석하여 실존주의 인간관 형성의 배경을 이해하고, 이들의 교육적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4) 안병욱, 『실존주의 현대사상』(서울: 삼육출판사, 1970), 243쪽.

II. 의미요법의 사상적 배경

1. 실존철학적 배경

실존주의 철학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여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된 현실적 삶을 있는 그대로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으로,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며, 그러한 주체적 인간의 인간성 회복에 역점을 두고 있다.⁵⁾ 이러한 실존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물들은 어떤 특정한 용도라는 목적 하에 만들어지는 데 반하여, 인간은 정해진 목적을 논할 수 없이 태어난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

실존철학적 인간에 대한 이해는 한마디로 세계 안에 피투(被投)된(In-die-Welt geworfen) 존재로서의 인간이다. 즉 인간은 세계로 우연히 내던져진 존재로서 인간의 선택은 그가 내던져진 세계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그가 상정할 수 있는 개인적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⁶⁾ 그러나 인간이 피투된 존재이지만 선택과 결정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존재이며, 또한 자신의 선택과 결정의 능력이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만 하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이다.⁷⁾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M. Heidegger)는 『존재와 시간(Sein und Zeit)』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실존주의의 인간 이해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여기서 실존이란 현존재(Dasein)가 일상인(das Man)으로 전락하여 자기 존재의 근거를 상실한 상태에서 본래적 존재 방식을 기투적(企投的)으로, 즉 던져진 상태 그대로 취하는 것이라 하였다.⁸⁾ 다시 말해 본래적 자기를 상실한 현존재는 일상인이 되고, 이러한 일상인으로서의 현존재는 특징 없이 평균화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중성자(中性者)로 전락하게 된다.

자기를 상실한 비(非)본래적인 일상인의 존재 방식을 취하는 현존재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일상인으로서의 현존재가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본래적인 자기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본래적인 자기로 되돌아가기를 결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인간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공동의 존재(being-in-common)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매 순간 결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⁹⁾

그러므로 전통적인 인간론이나 인간 이해라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나 인간상을 설정하는 것이라면, 실존철학적 인간 이해는 그러한 입장과는 대립되는 관점을 견지한다. 인간

5) 박인순, 「실존주의 철학을 통한 무용의 접근」(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3), 6쪽.

6) 이형득 외, 『상담이론 접근』(서울: 형설출판사, 1989), 83쪽.

7) 박현민, 「치료적 상담이론의 전인적 완성과 영적지도의 기초적 확립을 위한 영성적 상담론에 관한 기획」(수원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196쪽.

8) O. F. 볼노프, 최동희 역, 『실존철학』(서울: 이성과 현실, 1989), 222-223쪽.

9) 박범석, 「로고테라피를 통한 자아초월과 불교상담적 가치」, 『종교교육학연구』19(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4), 165쪽.

의 본질에 대한 모색은 실존 그 자체와는 모순이 되는 것이며, 실존이란 인간의 본질이 아니고 인간의 존재 방식을 가리킨다. 즉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바, 인간이 ‘실존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주체성을 가진 인간이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창조적 행동의 존재라는 것이다.

사르트르(J.P. Sartre)는 이것을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명제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명제는 인간 각자의 삶은 미리 짜여진 우주의 질서, 이미 주어진 사회적 규범, 누군가에 의하여 강제된 도덕적 판단 기준에 따르는 존재이기에 앞서 스스로를 자신의 책임 하에서 형성해 갈 수 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한다. 객관적 실재(實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자신에게 관련을 맺었을 때의 의미이며, 주어진 갖가지 규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상황에 맞게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행위, 혹은 스스로 정해서 지켜가는 인격적 결단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실존주의를 또한 인본주의(humanism)라고 부르는 것이다.¹⁰⁾

키에르케고르(S. Kierkegaard)에 의하면 실존하는 개인은 자기 자신과 관계하는 존재이고 자기 자신과 관계함으로써 타자와 관계한다고 하였다.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실존적 인간은 유한과 무한, 시간성과 영원성, 상대성과 절대성 사이에 있는 긴장의 실체이며 양극단 사이의 투쟁이며 종합이다.¹¹⁾ 실존을 강조한 그의 인간 이해 역시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실존적 상황에서 자유로운 선택과 결단의 행위로써 부단히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적 존재’(becoming being)로 설명하고 있다.

하이데거는 20세기 실존철학의 창시자 중 한 사람으로서, 특히 실존철학의 사상을 심리학자와 카운슬러에게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였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면서도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이다. 특히 진정한 실존과 거짓된 실존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지닌 인간은 이러한 선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구현해 나가게 된다고 본다. 이러한 하이데거의 견해에 따르면, 인간이란 운명의 수동성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자유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최대한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¹²⁾

이들 실존철학자들은 인간이 자유를 사용하여 결정적인 선택을 하려는 욕구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안, 고통, 죄악감과 같은 극히 주관적인 현상의 분석을 강조하고 있다. 실존철학이 추구하는 목적이란 실존, 존재, 자유, 선택, 책임과 같은 개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제시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실존 철학자들의 인간 이해와 관련하여 프랭클을 위시한 실존주의 사상가들이 언급하는 인간 존재의 특징을 메이¹³⁾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10) 金丁煥, 『教育哲學』(서울: 박영사, 1987), 78쪽.

11) 임병덕,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의 개념: 도덕교육에 주는 시사』, 『도덕교육연구』9(서울: 한국도덕교육학회, 1997), 128쪽.

12) 박현민, 앞의 글, 196쪽.

13) R. May, *Existential Psychology*(New York: Random House, 1992). pp. 11-51.

“인간은 현존재이며 인간은 그 자신을 지각하고 의식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책임을 진다. 그리고 인간은 정적 실체가 아니라 변화, 생성, 발전하는 존재로서 나와 너와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을 실현하거나 자신의 내면적 잠재력을 충족시킨다. 인간은 또한 유한한 존재로서 죽음, 고독, 정체의 상실, 소외, 공허 등을 지각할 수 있다. 또 인간 각 개인은 유일하고 일회적이며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 존재이다.”¹⁴⁾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프랭클의 의미요법과 연관된 실존주의적 인간 이해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실존주의란 비(非)본래적인 자기에게서 본래적인 자기에게로 돌아가려는 길이라고 표현 할 수 있다.¹⁵⁾ 이는 주체에 대한 자각이라는 말로 대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주체로서 어떻게 존재하는가?”, “주체로서 본래적인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어떻게 충실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자각에서 실존주의적 의미요법의 문제의식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주체로서 자아의 문제성과 성실성을 자각한 존재를 가리켜 실존이라고 부르며¹⁶⁾ 의미요법은 인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본래적인 주체로서 태도를 결단하며 주체적인 책임에 성실할 수 있는 길을 추구해 나가려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프랭클의 연구를 보면 정신병 치료에 집중될 뿐만 아니라 정신병 치료자들이 봉착하게 된 정신적 난관, 즉 많은 환자들이 지니고 있는 인간의 영적(靈的) 문제에까지 근접하고 있다.

결국 프랭클 학파는 의미요법과 실존분석을 겸하여 다루고 있으며, 이 두 가지 과제는 같은 이론을 각각 다른 맥락에서 전개한다고 볼 수 있다. 실존분석은 인간이해의 방향에 대하여 깊은 통찰을 제시해 주는 반면에, 의미요법은 이렇게 깊이 연민을 느끼는 인간에 대한 실제적인 치료 상의 이론이나 방법을 밝힌다. 따라서 의미요법은 과거와 격리될 수 없는 실존적 현실에서 출발하여 미래 즉, 앞으로 환자가 수행해야 할 일이나 인생의 의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실존철학자들이 사색의 과제로서 존재론을 전개하였다면, 프랭클은 이를 발전시켜 신체적·심리적·영적 차원의 통일적이고 전체적인 인간 이해를 전제로 ‘인간의 통합적 치유’에 나선다고 할 수 있다.

2. 심리학적 인간 개념의 극복

20세기에 접어들어 과학 문명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온 반면, 인간의 정신적 고뇌는 하루가 다르게 심화되어 왔다고 평가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세기 말부터 성장해 온 심리학은 과학의 접근으로 해결하지 못한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심리 요인을 해부하기에 이르렀다.¹⁷⁾ 그러나 그동안의 심리학적 성과들이 날로 심화

14) 정순주, 『빅터 프랭클의 상담이론 연구』(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35쪽.

15) 안병욱, 앞의 책, 243쪽.

16) 조가경, 『실존철학』(서울: 박영사, 1972), 36쪽.

되어가는 인간의 불안과 갈등을 어느 정도나 해소시켜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더구나 정신적·심리적인 손상으로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의 실존을 이해하고, 삶에 대한 현실적 책임을 일깨우려는 시도는 과연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다.

프랭클의 의미 요법은 이러한 기존의 심리학적 인간 이해에 대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선행 연구들의 성과들을 재평가한다. 프랭클은 프로이트(S. Freud)의 정신분석학에 기초한 역동심리학과 아들러(A. Adler)의 개인심리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프로이트나 아들러가 인간을 본능적 충동체로 본다는 점과 영적인 면을 무시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엄격한 비판을 가한다. 무엇보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 인간을 비합리적이고, 결정론적인 존재로 가정하는 점에 대하여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행동이란 기본적인 생물학적 충동과 본능을 만족시키려는 욕망에 의해 동기화 된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개인을 현재 입장에서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자로서 보다는 오히려 과거의 경험들에 의하여, 그것도 출생에서부터 5세 사이의 어린 시절에 경험한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심리성적인 사건들에 의해 결정되어 있는 존재로 본다.¹⁸⁾ 특히 프로이트에 있어서 인간 이해는 정신질환 환자들을 치료하는 임상적인 토대에서 출발하였고, 결정론의 확고한 입장과 인간의 무의식에 근거하고 있다. 즉 인간의 정신과 행동은 예외 없이 모두 인과론의 법칙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마음에는 보통 자신이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그의 마음과 행동 전반의 배후에는 알려지지 않은 ‘무의식의 동기’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심리학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의식적 과정을 의식적 과정으로 번역하여 의식적 지각의 빈틈을 메꾸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인간의 무의식적 역동성을 의식화시키는 작업으로서 인격 전체의 세 체계인 본능(id), 자아(ego), 초자아(super-ego)는 상호간에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인 경우에는 이 세 가지의 체계는 통일되고 조화를 이룬다고 프로이트는 주장한다.¹⁹⁾ 프랭클 학파가 프로이트의 이론을 수용한 가장 큰 부분은 무의식을 드러나게 하는 방법으로 꿈의 해석을 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로이트가 자유 연상을 근거로 하여 꿈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방법을 도입한 이래 우리는 그와 같은 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우고 익혔다. 이 방법은 실존 분석에도 이용되었다. 우리는 프로이트의 본능적 무의식을 깨어 들어가는 방법을 똑 같이 사용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목적을

17) J. B. Fabry, *The Pursuit of Meaning-Victor Frankl, Logotherapy and Life*, 1968, 심일섭 역, 『프랭클 실존분석과 로고테라피』(서울: 도서출판과 한글, 2002), 3쪽.

18) 이형득 외, 앞의 책, 53쪽.

19) Calvin S. Hall, *A Primer of Freudian Psychology*, 황문수 역, 『프로이트 심리학 입문』(서울: 범우사, 1984), 75-76쪽.

달리하는 영적 무의식을 들추어내는 방법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²⁰⁾

프로이트에 따르면, 본능은 진화의 산물이고 생물학적 자질의 심리적 대표자라고 말한다. 또한 자아는 객관적 현실 및 보다 높은 정신적 과정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초자아는 사회화의 소산이고 문화적 전통의 전달 수단이라고 표현한다.²¹⁾ 그러나 이러한 프로이트의 인간 이해와 쾌락 원리에 대해 프랭클은 이것들이 인간 행위를 설명해주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프랭클은 인간이란 자기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책임을 질 때 진정으로 실존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인간의 진정한 실존은 자기가 자신을 결정하는 순간에 나타나는 것이지, 본능이 충동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프랭클은 프로이트의 심리 분석은 인간 실존을 본능화시키고 탈아화(脫我化) 시켰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아德勒는 프로이트와는 달리 무의식보다 의식을 중요시 하였다. 아德勒에 의하면, 인간은 사회적 관계 안에서 열등감의 극복을 위해 우월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발전해 나간다.²²⁾ 아德勒는 인간 생활에 있어서 모든 진보는 자기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본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자연 속에서 무력하게 노출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의식하며,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존재이다.²³⁾ 즉 아德勒는 완전을 지향한 인간의 노력을 자신의 불충분과 불안을 자각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 생활은 언제나 인간으로 하여금 진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²⁴⁾

그러나 프랭클은 ‘권력에의 의지’를 표방하는 아德勒의 개인심리학은 객관적인 사회적 요소를 첨가했으나 프로이트가 범한 오류를 다른 방향에서 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프로이트는 자신의 심리학적 과정을 당시의 물리학(物理學)의 모델인 에너지 보존(保存)의 법칙을 따라 인과 관계의 연쇄로 구성했다. 그러나 아德勒는 인과 관계 대신 목적이라는 기능에서 인간을 보았다. 이것은 타고난 열등감이나 이와 비슷한 유아기적 상황은 자기존중(self-esteem)을 성취하기 위해 ‘권력에의 의지’를 지도 원리로 삼게 된 것이라는 관점이다.

프랭클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아德勒의 이론 역시 프로이트의 이론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결국은 아德勒도 프로이트와 마찬가지로 역시 인간의 정신적 구조를 역동적, 충동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다만 아德勒가 프로이트와 다른 점은 인과율적 결정론 대신에 목적론적 결정론을, 본능적 결정론 대신 사회적 결정론을 주장하게

20) V. E. Frankl, 김충선 역, 앞의 책, 240쪽.

21) S. Freud, *An Outline of Psychoanalysis*, 구인서 역, 『정신분석 입문』(서울: 오늘의 책, 1980), 50쪽.

22) 이형득 외, 앞의 책, 83-92쪽.

23) A. Adler, 설영환 역, 『아德勒 심리학 해설』(부산: 선영사, 1996), 348쪽.

24) G. Corey, 한기태 역, 『상담과 심리요법의 이론과 실제』(서울: 성광문화사, 1985), 41쪽.

되었다는 견해이다. 그러므로 프로이트의 폐쇄된 정신적 구조를 극복하려던 아德勒의 심리학 또한 프랭클의 핵심 이론인 인간의 영적 차원을 찾는데 실패함으로써 그의 목적론이 방향을 잃고 말았다는 것이다.²⁵⁾

프랭클은 이제까지 프로이트나 아德勒를 비롯한 많은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심리 변화와 이에 따른 문제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핵심에 다가서지 못한 이유가, 대체로 인간의 욕구와 이 욕구의 대상과의 분리가 해결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라고 보았다. 프랭클은 이러한 인간의 심층에 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었으며, 이는 앞으로도 프랭클의 전반적인 인간 이해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프랭클은 인간이 육체를 지닌 이상 제한된 자유를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정신적이고 육체적으로 제한된 테두리를 넘어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만은 인정한다. 이렇게 프랭클은 프로이트와 아德勒의 심리학을 극복하는 자신의 독특한 심리학을 전개해 나갔으며, 결국은 ‘의지의 자유’라는 기존의 심리학적 한계를 극복하여 ‘의미에의 의지’를 주장하는 의미요법 이론의 창시자가 된다.²⁶⁾ 프랭클은 실존철학적 인간관과 기존의 심리학적 인간 이해를 발전시켜, 자신의 체험에 근거한 ‘의미에의 의지’라는 통합적인 의미요법 이론을 세우게 되는 것이다.

3. 체험을 통한 존재 의미 자각

프랭클은 1905년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비엔나에서 유대인이라는 운명적 신분으로 태어나, 나치 치하에서 1942-1945년까지 아우슈비츠(Auschwitz)의 유대인 강제수용소에 감금당하게 된다. 그는 이곳에서 부모와 아내, 두 자녀를 잃는 너무도 처참한 체험을 하는 등, 강제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깨우치게 된다. 이러한 극단적인 체험이 그의 독특한 의미요법 형성의 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그가 창안한 의미요법이란 영적 존재인 인간이 실존적 문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차원에서 시도하는 정신분석요법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수용소 생활 후에 출간된 그의 주저서 『의미를 찾아서』(Man's Search for Meaning)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는 저항할 수 없는 고통에도 아랑곳없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삶 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죽음을 넘어서 삶 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신념이야말로 그가 나치 의 강제수용소에서 겪은 혹독한 시련을 견뎌낸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인간이 어떠한 극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보았다.

프랭클은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을 수 있다 해도 인간의 마지막 자유, 즉

25) V. E. Frankl, *Man's Search for Meaning*(New York: Washington Square Press, 1959), p.p. 125-126.

26) 김형진, 「의미요법(Logotherapy)의 기독교적 재해석」(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37쪽.

자기 자신만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엄청난 굶주림과 수면 부족, 더 이상 처참할 수 없는 수용소 생활 속에서도 인간은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빵 한 조각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한 사실과 인간 자신이 강제수용소라는 환경 속에서도 어떤 종류의 죄수가 되는 가는 또한 자신이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 이 마지막 자유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진 자유인 것이다.²⁷⁾

프랭클은 인간 실존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운명이라기보다는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우리 자신의 태도이며, 인간은 고통과 죽음을 포함하여 모든 상황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다. 사람의 깊이 있는 삶은 긍정이요, 적극적인 창조이며, 사람은 역경에서 더욱 강해진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궁극적인 의미를 찾지 못해서 실망에 빠지고 만다고 보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비엔나로 돌아온 프랭클은 이러한 수용소 체험을 토대로 자신의 의미 요법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세우게 된다.

물론 그의 이론의 주요 개념들은 아우슈비츠에 가기 전부터 이미 형성된 것이었지만, 그 곳에서의 가혹한 경험을 통해서 실증적 확인의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다. 프랭클의 이러한 ‘의미를 향한 추구’는 오늘을 사는 인간에게 자신의 현실 속에서 의미를 찾게 하고, 초월적인 그 무엇(靈性)을 탐구하게 하는 가치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프랭클은 의미요법의 성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의미요법은 삶의 의미와 동시에 의미의 추구를 중심으로 하는 심리요법이다. 실제로 로고스(Logos)란 의미를 뜻한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정신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미요법은 영적, 정신적 차원을 충분히 고려한다. 의미요법은 동시에 인간의 정신과 심리의 본질적인 상이점을 인식하게 하고 이 상이점을 실제로 활용하게 하는 것이다.”²⁸⁾

의미요법에서 인간은 그의 생을 위한 궁극적이고 고귀한 의미를 찾기 위해 본래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인간이 지닌 의미를 향한 의지가 인간의 정신건강이나 자기실현을 위한 주요한 요인이 되는 동시에,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의 생이 할 수 있는 궁극적인 가치와 가능성을 실현시키게 하는 것이다²⁹⁾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의미요법은 인간의 삶의 의미에 역점을 두는 정신요법이며, 환자로 하여금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 된다. 즉 의미요법은 인간의 영적 차원을 강조한다. 여기서 영(spirit)이란 말은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인간 실존의 특수한

27) 최정웅·박선실, 『상단에 있어서 Viktor Frankl의 의미요법에 관한 연구』 『교육학 논총』 제21권 2호(서울: 우리교육학회, 2000), 132-133쪽.

28) V. E. Frankl, 이봉우 역, 『심리요법과 현대인』(왜관: 분도출판사, 1979a), 80쪽.

29) 박영수, 『Frankl의 의미요법에 대한 교육적 의의와 적용』(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27쪽.

차원에 대한 말이다.³⁰⁾ 그는 종교적인 개념과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영적(spiritual)이란 말 대신 정신적(noëtic) 현상의 차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여기서 ‘영적’이라는 개념은 특수한 도덕적 결단, 의미추구, 선택, 책임, 자신을 객관화하거나 반대하는 능력, 세계를 개념화하는 능력, 본능적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승화시키는 능력, 자유의지의 구사, 가치의 인정과 결단 등의 인간의 심리적인 수준을 초월하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의미요법은 인간의 의미와 영적 차원에 관심을 둔 모든 정신요법적 인간론을 구성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³¹⁾ 결국 인간이 살아가는 주된 동기는 자아를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찾는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의미요법은 건강한 삶의 소유자를 자아 초월의 성격을 갖는 인간에게서 찾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의미요법이 추구하는 영적인 삶이라는 은유는 종교적이거나 관념화된 개념이 아니라, 프랭클 자신이 겪은 수용소에서의 극단적인 절망과 역경에서 도출된 체험적 언어이다. 의미요법이 하나의 이론이나 기법으로 정착되어 있으나, 그 형성 배경의 하나로서 프랭클 개인의 체험을 이해하는 것은 의미요법의 깊이를 공감하는데 도움이 된다. 인생의 여정에서 누구나 프랭클과 같은 극단의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순간 스스로 결단하고 자기만의 의미를 발견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여서 인간은 누구든 영적인 삶을 지향하는 자세로부터 분리될 수는 없을 것이다.

Ⅲ. 의미요법에서의 인간상

1. 선택하는 자유로운 존재

의미요법에서 자유는 결단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질을 의미한다. 상황이 인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주어진 상황에 굴복하느냐, 대항하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랭클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선택할 자유가 주어져 있으며, 본능, 유전 그리고 환경에 직면하여서도 여전히 자유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³²⁾ 이는 비록 인간이 이 세 측면의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이들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속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간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존재가 무엇이 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어느 것을 실현할 것인가는 오직 자신의 결정에 달려있어야 한다

30) V. E. Frankl, 이봉우 역, 앞의 책(1979a), 13쪽.

31) 황선희, 『프랭클의 인간이해와 로고테라피의 치료기술』, 『동주여전 논문집』(서울: 동주여자전문대학, 1980), 132쪽.

32) V. E. Frankl, *Psychotherapy and Existentialism*, 1979, p.68.

고 본다. 즉 결단을 통한 자유는 인간의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조건을 초월해서 관에 박히지 않은 자유로운 인간이 되게 하는 것이다. 결국 결단의 유보는 자유로부터의 도피의 원인이 된다.³³⁾ 이와 같이 프랭클은 인간은 어떠한 운명의 산물이 아니라, 결단이라고 하는 제3의 요소를 지니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인간은 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위해서 결단을 하게 되고, 결단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프랭클은 ‘...로부터의 자유’ 혹은 ‘... 앞에서의 자유’를 동시에 말하고 있다. 이는 소극적인 의미에 있어서 어떤 조건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다. 어떤 상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책임성이 있는 자유, 양심 앞에서의 자유라는 적극적인 의미이다. 프랭클에 의하면, 한계 내에서 인간은 자유로이 행동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대해 취하는 바로 그 태도에 의하여 참된 실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인간이 어떠한 조건 하에 있더라도 그러한 상황과 맞서는 자유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존 분석에 의하면,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특성으로 영성과 함께 자유는 인간의 본질을 이루는 책임의 기초 위에서 언제 어디서나 발견되고 명확하게 밝혀 낼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특성의 하나라고 말한다.³⁴⁾ 프랭클 또한 인간은 선택의 자유와 함께 선택의 위기와 한계상황을 동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요하게 된다. 이처럼 선택에서 요구되는 결단과 책임을 통해 초월적 영성으로 나아가려는 인간의 자유는 인간 존재를 이해하는 기본 조건이 되는 것이다.

2. 결단하는 책임 있는 존재

프랭클에 의하면 ‘무엇에 대한 자유’가 인간의 책임의 핵심이 된다. 즉 자유가 인간의 책임의 관건에서 유지되지 않을 때 그것은 독단으로 변질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즉 인간의 자유 속에서 실존성을 발견하며 책임 안에서 그의 초월이 나타난다.³⁵⁾ 그리고 인간은 언제나 자신과 양심과 신에 대해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프랭클에게 있어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책임을 질 줄 아는 동물이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는 인본주의-실존주의적 접근법의 일반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이 접근법에서 인간이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단하는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자기가 결단한 것은 그 결과가 어떠한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는다. 즉 책임의 회피는 인간 상실의 길이요, 비인간화의 첩경이다.³⁶⁾ 그러므로 인

33) V. E. Frankl, op.cit.(1967), p.p.190-212.

34) Ibid, p.227.

35) 정순주, 앞의 글, 21쪽.

36) 오성춘, 『목회상담의 독특성』, 『기독교사상』(서울: 기독교사상사, 1985), 206쪽.

간의 자유는 책임을 가지고 수행하는 한도 내에서 참 자유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 자유 안에 인간의 존엄성이 나타나고, 책임성 안에서 인간의 초월성이 나타난다.³⁷⁾ 프랭클은 인간의 존엄성과 각 개인의 존엄성을 형성하는 사고를 책임성이라 한다. 이러한 존엄성을 유지하는가 손상하는가 하는 것은 항상 각 개인에게 달려있다고 보았다.³⁸⁾

인간은 자기 존재를 인식할 수 있으므로 자기 존재에 책임을 진다. 따라서 각 개인은 자기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택하고, 행동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가운데 자신의 본질을 자신이 만들어가며, 자신의 존재 의미도 자신이 부여하는 것이다. 결국 선택의 자유를 가졌다는 것은 그 자체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 그 선택에 따르는 책임을 받아들일 때에만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처지를 인식한 인간은 실존적 불안을 느낄 수 있다는 견해이다.

그러므로 프랭클은 자유와 책임의 관계에서 오는 많은 부담감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자유는 전체적 인간의 주관적 측면이고, 책임은 객관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관적 자유는 객관적 책임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어떤 태도를 취하는 자유는 책임을 지는 자유로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자유를 통한 책임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인간은 삶의 의미를 실현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인간의 자유는 책임감을 통해서만 확보된다고 할 수 있다. 책임은 자유에 대한 또 하나의 초점이므로 인간은 언제나 자신에, 양심에, 신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³⁹⁾ 그러므로 인간은 자유 속에서 그의 실존성을 발견하며 책임 안에서 그의 초월이 나타난다. 프랭클은 이러한 책임의 근거를 또한 양심의 현상 안에서 발견하며, 책임은 양심을 통해서 지각에 관련되어 진다고 말하고 있다.

프랭클에게 있어서 인간의 인간 됨이란 지각하고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한다. 의미요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도록 하는데 많은 의미가 있다고 한다. 여기서 책임의 내용, 즉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언제나 의미 성취와 가치 실현에 대한 책임으로서 영원 가치 뿐 아니라 상황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즉, 프랭클에 있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가치 실현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책임은 상황과 사람에 대한 책임이 된다.

“우리들의 현존재의 책임이라는 것은 단지 ‘행동에 있어서’(in der Tat)의 책임뿐만 아니라 그것은 역시 ‘지금과 여기’(hier und jetzt)에서의 책임이다. 그것은 당사자 자신의 것인 인격의 구체성과 그 인격의 그때그때의 상황의 구체성이나 책임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현존재의 책임

37) 김재영, 『의미요법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고찰』, 『신학전망』(광주: 광주가톨릭대학교, 1978), 145쪽.

38) V. E. Frankl, 이봉우 역, 앞의 책(1979a), 147쪽.

39) Donald F. Tweedle Jr., *Logotherapy and the Christian Faith*(Michigan: Baker Book House, 1961), p.16.

은 ‘사람에 대한’(ad personam) 책임이며, 또한 ‘상황에 대한’(ad situationem) 책임이다.”⁴⁰⁾

프랭클의 책임성에 대한 강조는 범 결정주의의 극복이다. 즉 인간은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조건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인과 결과의 법칙에 지배되는 심리적 기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기를 결단하는 주체임을 역설하는 것이다.

3. 초월 지향의 영적 존재

신의 존재에 대한 정의를 고정적이고 불변하는 하나의 언어로 담아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질에 대한 대답도 아직 미완(未完)의 상태로 남아있다. 여러 학문 분야들이 인간에 대한 제(諸)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인간 본질에 대한 종합적 시도는 영원히 진행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⁴¹⁾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종래의 심층심리학에서는 인간을 충동적인 에너지의 역동체로 보아서 특정 메커니즘의 한 부분으로 인간 존재를 격하시켰던 것에 비해, 프랭클은 인간을 인격적이고 영적인 존재로 다시 회복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고 본다.⁴²⁾

이기춘에 의하면 인간이란 의식과 양심을 지니고 생물학적 및 심리학적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존재라고 말한다. 이것은 인간 존재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의미’와 ‘가치’를 이루어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영적인 차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뜻한다. 이러한 인간의 영적 차원이란 의미를 향한 의지, 목표 지향성, 사상과 이상, 창의성, 상상력, 신념, 육체를 초월한 사랑, 몰입, 유머 감각, 선택의 자유와 같은 자질을 뜻하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열거된 자질들은 인간의 육체와 정신과 영성이 각각 다른 차원에 속해 있으나 전체성과 일치성 속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 중 어느 한 차원도 무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인간은 생물학적 욕구에 의해 그 모습이 결정되기도 하고 사회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하지만 인간의 진정한 모습은 그러한 제약을 넘어서 영적 차원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인간답게 되기 위해서는 영적 차원에서까지의 확대가 되어야한다는 것을 뜻한다. 영적인 차원에서 인간을 생각한다는 것은 인간을 마치 그 존재의 육체적, 심리적 그리고 정신적 양식들이 각기 분리될 수 있는 것처럼 취급함을 의미한다.⁴³⁾

40) V. E. Frankl, *The Doctor and Soul: from Psychology to Logotherapy*, 이현수 역, 『정신세계의 병리와 해부』(서울: 양영각, 1983), p 14.

41) 김현조, 「영적 성숙을 위한 의미요법의 접근」(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31쪽.

42) 김용량, 「영성수련이 생애목적 변화에 미치는 효과 및 치료요인」(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논문, 1999), 9, 12쪽.

43) 이기춘, 「고난과 의미에 대한 연구」(감리교신학대학 석사논문, 1984), 212쪽.

프랭클은 영성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인간 특유의 존재 양식의 핵심으로서 그것은 인간의 경험과 한계를 벗어난 것이기에 분석이나 객관화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를 소유함으로써 인간은 비로소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며, 이 속에서 인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과 다른 일까지도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입장이다.⁴⁴⁾ 프랭클의 자기 초월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이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자유에서 이해된다. 이것은 곧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현상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정신적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인간 본성의 회귀의 원리인 것이다.⁴⁵⁾

이와 같이 영성은 어떤 첨가물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를 뜻하는 것이다. 결국 영성은 실존의 본질이다. 프랭클은 인간 실존과 영성과의 관계에 대하여 실존은 영성을 축으로 하여 육체와 정신이 통합되어 인간의 통일성과 전체성을 이룬다고 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성에 의하여 다른 동물과 구분된다.⁴⁶⁾ 이러한 영적인 차원은 자유, 책임 속에서 더욱 분명히 나타난다. 즉 인간은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조건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인간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지배되는 심리적 기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기를 결단하는 주체인 것이다. 그리고 바로 자기 초월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존재인 것이다. 의미요법에서 바라보는 인간은 이러한 영성, 자유, 책임의 세 가지 특색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자기가 지닌 의미를 표현하는 존재이다.⁴⁷⁾

IV. 결론: 의미요법의 교육적 의의 및 시사점

의미요법은 인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본래적인 주체로서의 태도를 결단하며 주체적인 책임에 직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이론이다. 본 연구는 프랭클의 상담 목적이 현실에 놓인 문제의 해결만이 아니라 궁극적인 인간 의미의 실현으로서 영적성숙이라는 궁극적인 교육적 가치를 갖는 것에 주목하고, 이러한 상담이론이 갖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실존 철학을 바탕으로 탐구하였다.

첫째, 의미요법의 형성 배경을 실존철학적 인간관, 심리학적 인간이해, 프랭클의 체험을 통한 존재의미 자각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이를 통해 의미요법은 한 시대의 사상과 개인의 고난체험의 결합으로 형성된 상담이론임을 보이고자 하였다.

둘째, 의미요법에 전제된 인간 이해의 문제를 선택하는 자유로운 존재, 결단하는 책임

44) 정순주, 앞의 글, 21쪽.

45) V. E. Frankl, *The Will to Meaning: Foundation and Applications of Logotherapy*(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이봉우 역, 『로고테라피의 이론과 실제』(왜관: 분도출판사, 1979b), 23쪽.

46) 이기춘, 앞의 글, 21쪽.

47) V. E. Frankl, 이봉우 역, 앞의 책(1979b), 71쪽.

있는 존재, 초월 지향의 영적 존재의 차원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의미요법이 자유롭고 책임 있는 영적 주체로서의 인간 이해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의미요법이 갖는 의의는 실존적 위기와 공허를 겪고 있는 현대 사회에 새로운 교육적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현실의 문제는 단지 현재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상실할 때에 발생한다. 그러므로 현실의 고난과 불안은 현재에 대한 의미의 부여와 미래에 대한 의지를 통해서 비로소 극복되고 초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자기 자신의 실존적 상황을 두려움 없이 직면함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인격으로 성숙해가는 것이라 하겠다. 일상의 작고 사소한 일에서부터 절망과 좌절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자유로운 결단과 책임에 의해 의미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인간이해라고 할 수 있다.

실존주의적 의미요법의 입장은 과학적이거나 관념적인 용어로 설명될 수 없는 인간 삶의 본질적인 물음을 통해 인간에게 주어진 한계상황을 명확하게 분석하려 한다. 인간은 더 이상 관찰이나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매순간 삶의 의미를 스스로 묻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체험의 주체로 자각된다. 즉 그 어떠한 해석의 틀이나 객관적인 판단도 인간을 자신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지 못한다고 보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의 선택과 결단에 책임을 지는 초월의 주체가 된다고 본다. 이와 관련된 오늘날의 교육문제는 인간의 삶의 문제와 직결된다. 지금과 같은 지식 위주의 경쟁적인 교육방식 속에서 인간성의 회복이 더욱더 요원해진다는 점에서 우리의 현실은, 각자의 깊은 내부에 부여된 참된 자기 속에서 영적인 존재로서의 자신을 자각하는 것이 필요함이 절실한 시기이다. 현재 가장 이상적인 교육의 형태로서 전인교육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이는 지·정·의를 갖춘 인간의 육성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마치 인간이 세 영역을 양적으로 조합하거나 종합하면 완성된다는 맹목적인 관념을 갖게 한다.

의미요법에서의 전인의 의미는 육체와 정신, 영의 세 가지의 조합으로 이것은 기계적인 종합을 이루는 것과는 다르다. 인간은 분리될 수 없는 길이, 넓이, 높이를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육체와 정신과 영을 각각의 것으로 분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분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인간은 전체로서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전체로서의 자기결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영적이고 초월적인 차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교육에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몸과 혼과 정신이 고루 발달한 온전한 전인(whole person)이 형성될 수 있으며, 이것이 교육을 새롭게 해석하는 주요한 관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물론 전인교육에 대한 일반적 시각이 몸과 혼(지, 정, 의)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의미의 전인교육은 각각에 해당되는 모든 교과를 잘해야 한다는 의미로 왜곡되어 왔다는 것은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이미 확인되고 있다. 전인교육이 단지 부분들의 양적인 종합이 아니라 부분의 합과는 전혀 다른 전체로서의 인간관을 추구한다

는 점을 인식한다면, 의미요법의 실존적 인간이해가 통합의 원리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요구된다.

프랭클의 의미요법은 현재의 실존적 공허와 위기상황을 삶에 대한 부여를 통해 극복하고, 나아가 초월적 영성으로 다다를 수 있는 삶의 자유와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 영적인 성숙을 지향하며 궁극적으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교육과 삶이 유리되어 있는 현재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교육의 역할을 새롭게 모색하는 교육적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또한 교육이 의미를 발견하도록 이끄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의미요법의 통합적이고 영적인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방법과 교육현장에서의 적용 방식은 추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용량, 「영성수련의 생애 목적 변화에 미치는 효과 및 치료요인」(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金丁煥, 『教育哲學』, 서울: 박영사, 1987.
- 김현조, 「영적 성숙을 위한 의미요법의 접근」(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김형진, 「의미요법(Logotherapy)의 기독교적 재해석」(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레슬리, Robert C., 이병일 역, 『예수와 로고테라피』, 서울: 혜선출판사, 1983.
- 박동순, 「Viktor Frankl의 상담이론에 대한 연구」(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박범석, 「로고테라피를 통한 자아초월의 불교상담적 가치」 『종교교육학연구』19(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4).
- 박영수, 「Frankl의 의미요법에 대한 교육적 의의와 적용」(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박인순, 「실존주의 철학을 통한 무용의 접근」(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박현민, 「치료적 상담이론의 전인적 완성과 영적지도의 기초적 확립을 위한 영성적 상담론에 관한 기획」(수원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벤너, D., 이만홍·강현숙 역, 『정신치료와 영적 탐구』, 서울: 하나의학사, 2000.
- 볼노프, O. F., 최동희 역, 『실존철학』, 서울: 이성과 현실, 1989.
- 심일섭, 『프랭클 실존분석과 로고테라피』, 서울: 도서출판 한글, 2002.
- 아들러, A., 설영환 역, 『아들러 심리학 해설』, 부산: 선영사, 1986.
- 안병욱, 『실존주의 현대사상』, 서울: 삼육출판사, 1970.
- 오성준, 『목회상담의 독특성』, 서울: 기독교사상사, 1985.
- 윤, C. G., 이은봉 역, 『종교와 심리학』, 서울: 경문사, 1980.
- 이기준, 「프랭클의 의미요법과 목회상담」 『신학사상』5(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79).
- 이남표, 『의미요법』, 서울: 학지사, 2000.
- 이상훈, 「디지털 문화와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17(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3).
- 이장호, 『상담심리학 입문』, 서울: 박영사, 1992.
- 이호건, 「빅터 프랭클의 로고테라피에 나타난 종교의 위치」(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 이형득 외, 『상담의 이론적 접근』, 서울: 형설출판사, 1989.
- 임병덕,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의 개념: 도덕교육에 주는 시사」 『도덕교육연구』9(서울: 한국도덕교육연구회, 1997).
- 정순주, 「빅터 프랭클의 상담이론 연구」(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정상철, 「프랭클의 의미요법의 연구」(서울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曹街京, 『實存哲學』, 서울: 박영사, 1972.
- 최경민, 「Viktor E. Frankl의 실존분석과 의미요법」(광주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최정웅·박선실, 「상담에 있어서 Viktor Frankl의 의미요법에 관한 연구」 『교육학논총』제21권 2호(서울: 우리교육학회, 2000).
- 최형철, 「Viktor E. Frankl의 의미요법연구」(장로회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코레이, 제럴드, 한기태 역, 『상담과 심리요법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성광문화사, 1985.
- 코레이, 제럴드, 오성준 역, 『상담학개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4.
- 파브리, J. B, 고병학 역, 『의미치료』, 서울: 하나의학사, 1985.
- 패터슨, C., 이관용 · 서봉연 역, 『카운슬링과 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84.
- 프랭클, 빅터, 이봉우 역, 『심리요법과 현대인』, 왜관: 분도출판사, 1979a.
- 프랭클, 빅터, 이봉우 역, 『로고테라피의 이론과 실제』, 왜관: 분도 출판사, 1979b.
- 프랭클, 빅터, 이현수 역, 『정신세계의 병리와 해부』, 서울: 양영각, 1983.
- 프랭클, 빅터, 정태시 역, 『죽음의 수용소에서』, 서울: 제일출판사, 1985.
- 프랭클, 빅터, 정태현 역, 『무의식의 신』, 왜관: 분도출판사, 1985.
- 프랭클, 빅터, 김충선 역, 『삶의 의미를 찾아서』, 서울: 청아출판사, 1996.
- 프로이트, S., 구인서 역, 『정신분석 입문』, 서울: 종로서적, 1980.
- 프로이트, S., 설영환 역, 『프로이트 심리학 해설』, 서울: 선영사, 1996.
- 하이네만, F., 황문수 역, 『실존철학 — 살았는가 죽었는가?』, 서울: 문예출판사, 1979.
- 홀, C. S., 황문수 역, 『프로이트 심리학 입문』, 서울: 범우사, 1984.
- Krueger, K. J., “The Search for Meaning: A Logotherapeutic Approach to Ernest Hemingway’s Life and Work”,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6.
- May, R, *Existential Psychology*, New York: Random House, 1992.
- Tweedle, Donald F. Jr., *Logotherapy and the Christian Faith*, Michigan: Baker Book House, 1961.

원고접수: 2009년 1월 5일, 1차심사: 1월 22일 게재 승인일: 2월 2일

연구자 소개: 한미희

- ① 전공: 교육학과(상담 · 심리) / 소속: 동국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상담연구원
 - ② 관심영역: 의미요법의 구조화, 영성상담, 진로프로그램개발
 - ③ 주요논저: 의미요법의 기본가정과 심리치료적 성격, 에니어그램연구, 제3권 1호, 2006년 / 대학생의 진로인식을 위한 효과적인 상담, 동국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상담가이드북1호, 2009년.
 - ④ E-mail: diaplus@hanmail.net
-

Abstract

Human Being in Logotherapy and Its Educational Implications

Han, Mihee

Dongguk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Victor E. Frankl's Logotherapy which is full of suggestions to spiritual education. Victor E. Frankl who contributes to the existential approach in counseling has presented Logotherapy which is a new psychotherapy emphasizing the spiritual possibility of human being. Frankl's Logotherapy can be applied to spiritual education that can give the lights on the modern educational problems. He came to the conclusion about the serious problems of contemporary human being as the existential emptiness. He also shows the way that man can overcome the emptiness by pursuing the meaning of human existence and finding out the purpose of his own life.

Frankl says that the three characteristics for human existence are spirituality, freedom and responsibility. He emphasizes especially on the human spiritual nature and the need to find out meaning of his life. It would be the key to overcome the mental limits of human being not just to cure psychological restrains. Eventually we shall have a new horizon for the understanding of human beings and the meaning of life from the transcendental existence.

Logotherapy's basic assumptions about human being are freedom of will, will to meaning and meaning of life. It means that human beings are the liberal, responsible and transcendent existence to choose their own meaning. However, it needs the endeavor to overcome their own limits of the life time. It would lead man to spiritual dimension of mind by awakening the existential condition and proceeding the transcendental will. That can be the beginning steps to the practical application in the educational fields.

Key words : logotherapy, Viktor Frankl, spiritual growth, transcendental understanding of human beings, practical application in the educational fields.